



연말 남원 곳곳 사랑나눔 줄이어

연말을 맞은 남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민들의 정성이 끊을 않고 있다. 도봉동의 부림식재(대표 정형국)는 지난 19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 300만 원을 기탁, 취약계층을 위해 8년째 추석과 연말이 되면 현물 및 현금 기탁하고 있다. 향교동 통장협의회에서는 20일 29명의 통장이 마음을 모아 3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내동·박달·용정·율치 마을 주민 8·9·12동 주민, 호남비스텍, 대창마루, 남원교차로, 유한회사 경수전력 등에서 총 672만 원을 기탁했다. 수지면의 수지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김봉수) 회원 일동이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부, 사회복지관 한화손해사정(대표 문정근)으로부터 김장김치(2천만 원 상당)를 후원받아 관내 취약계층 380여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체육회, 장학금 200만원 기탁

무주군체육회가 20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측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체육회 송재호 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부모 된 심정으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체육회는 무주의 체육단체 회원 관리를 비롯한 체육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에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20일 고창교육 발전을 위한 제4회 고창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승오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및 사업담당자 14명이 참석해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매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창도서관 증축 및 수선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폐교재산 활용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매각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승오 교육장은 "올 한해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창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암푸드먼트 정문섭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전북 순창군 출향인들이 연이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순창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 적성면 출신 기업인 (주)세암푸드먼트 정문섭 대표가 20일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시와 전남 영광군에서 엿기름 및 식혜 가공 공장을 운영중인 정문섭 대표는 현재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유림식 야식이 쌀채소 농장을 고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순창으로 이전을 희망할 정도로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문섭 대표는 "멀리서나마 고향 순창군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창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목민감사패 수상

정현을 익산시장, 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정책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 공로

정현을 익산시장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3년 초 정대상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목민감사패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목민감사패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현을 시장이 수상했다. 익산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과를 신설, 전국 최대 규모 합인 혜택을 제공하는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 최초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



한 협조를 통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2023년 초정대상에서 김안배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익산=이재춘기자

NH농협 남원시지부, 남원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맞아 NH농협 남원시지부에서 현금 1천만원과 축산물꾸러미 180박스(540만원 상당)를 총 크게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원시지부는 매년 장학금 및 성금 기탁, 백미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초 "축산물꾸러미 정(情) 나눔행사"에서도 축산물 꾸러미 100박스를 전달해 지역기업으로서의 행보 또한 이어가고 있다. 오영석 남원시지부장은 "올해 초 축산물꾸러미가 특히 반응이 좋아 이번에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와 함께 상생하는 NH농협 남원시지부에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기탁된 성금 및 물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며, 성금 기탁은 남원시



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설천면발전회·무풍면 주민자치위, 이웃돕기 훈훈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무주군에는 읍면 곳곳으로 향하는 이웃 사랑의 마음들로 훈훈하다. 무주군 설천면발전회(이사장 최병용)에서는 지난 19일 관내 45개소 경로당에 전자레인지 1대씩을 기증했다. 최병용 이사장은 "허리산들이 잘 드시고 건강해야 집집마다, 마을마다 웃음꽃이 핀다"라며 "겨우내 경로당에서 맛있는 음식 해서 드시고 재밌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자레인지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설천면지회 임종희 회장은 "겨울이면 경로당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나 간식 드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마음 써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설천면발전회는 60명의 회원들이 면민의 날과 반딧불축제, 설천면청년회 농악공연 수거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웃을 돕는 기부활동에도 적극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무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무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진표 회장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주민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데 있어 그 중심은 항상 지역주민들"이라며 "성금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태권도학과 창작공연 수익금 전액 기부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난 17일 진행된 전북 지역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태권도창작공연 수익금 전액을 초록어린이재단 전북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10년째 태권도창작공연을 제작해 지역민에게 태권도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비제(未濟)로 1992년 개구리 소년을 각색한 공연이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리빙랩으로 지원받아 진행했다. 특히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2023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우승팀으로, 최근 전국 태권도 시범 공연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태권도공연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영국 유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확정까지 받은 '싸움아리' 팀을 보유하고 있다. /전주=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홍보클럽, 2023 사랑나눔 물품 후원

김제지평선홍보클럽(회장 서금옥)은 20일 김제시 신흥동 소재 임마누엘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말연시 사랑 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지평선홍보클럽 임원들은 쌀 10kg 30개를 관내 복지센터에 전달하며 연말연시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서금옥 김제지평선홍보클럽 회장은 "점점 추워지는 연말연시에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더욱 살피며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오고 계시는 지평선홍보클럽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종남 우석대 교수,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우석대학교 백종남(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20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백종남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백종남 교수는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대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남천현 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준 백종남 교수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편 특수교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백종남 교수는 공주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7년 대학에 부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장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혼인신고 부부에 태극기 선물 증정

남원시는 2024년 1월부터 남원시에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원시에서 혼인의 연을 맺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비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청 민원과의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족 관계의 첫 출발인 혼인신고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한 사업이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무주군은 20일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이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동일 회장은 "무주군체육회와의 인연으로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교차 기부를 하게 됐다"라며 "고향사랑기부금에 무주가 발전하고 무주군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뽐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안군체육회는 지난 2016년에 창립대 부안군의 체육단체와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한평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를 진행하며 체육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에스엔에스 김진수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순창군 구림면 출신 기업인 (주)에스엔에스 김진수 대표가 20일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순창 인계면 농공단지에서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에스엔에스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세아테크를 운영중인 김진수 대표는 고향 발전을 위해 순창군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진수 대표는 "작은 힘이나마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순창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